

가정 예배 모범

- 2022_04_17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4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식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의 이름 높이며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요한복음 20장 1-18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1절, 6-7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무덤에는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할 무덤 안에는 시신은 없고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과 마리아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다시 빈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어야 할 곳에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다시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17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 앞에 나타나 내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뵈었을 때 나타나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찾아오는 평안이 가득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부활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지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신앙의 핵심인 부활을 항상 기억하여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